

드높은 꿈과 이상을 품고 사무소를 개업한지 겨우 일년을 넘긴 나에게 최근에 접하여지는 건축계의 일들이 그 당위성은 차체에 두더라도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정도로 어렵고,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원칙이 무시되는 모순된 사회 속에서 그나마 버티어 내려면 관행이라는 터울 속에 같이 나뒹굴어져야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감에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다.

먼저 건축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에 그동안 수수방관만 해 온 결과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나니 여기저기서 '나 죽겠다'고 난리만 칠뿐 누구하나 당당하게 정부나 국민에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내외적으로 활동의 기회가 없는 소장파의 한 사람으로써 선배 및 동료 건축사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어느 햇병아리의 항변

Take Firm Measures

문성운 /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by Moon Sung-Un

3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일년남짓 연혁의 건설기술인협회란 곳에 완전히 무릎꿇고 항복하게끔 된 처사에 우리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분야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작금에 우리 회원들은 협회의 무능함과 책임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질책을 하면서도 지금은 모든 상황전개가 내가 아닌 협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협회의 존속 여부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일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면 이해당사자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건설기술인협회 같은 집단의 경우를 보면 특별히 조사해 보지 않아도 고위 공직자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대개의 인원이 건설계통의 전공과는 무관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정부를 실현하고자 인원을 축소하였다면 그 인원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난히도 각 부처별로 생소한 협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탄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예로 건설기술인협회와 순수 회원으로 유지되는 우리네 협회를 비교했을 때 설립된 지 1년 밖에 되지않은 건설기술인협회에 꿈쩍못하고 당하는 이유 한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같이 회원으로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의 직원으로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들의 직장이고, 생계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협회 구성은 어떤가?

협회의 회장단을 비롯하여 각분과 소속 회원들은 나름대로 크건 작건 간에 모두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 사회적 기반과 재정적 자립도가 높더라도 마음놓고 대외적으로 우리들을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싫건 좋건 간에 협회에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대표하여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지원도 서슴치 말아야 한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쌓아놓은 재산이 많더라도 누가 내 사무소일 뎡개치고 협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협회차원에서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협회 내에서도 작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협회장 등의 선출 시기가 되면 개개인의 역량과 인품 등에는 아랑곳없이 어느 어느 학교 출신 등의 포진에 따라 당락의 운곽이 미리 드러나게 되고, 활동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회원을 대표할 만한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확연이 없고, 영세한 사무소 운영 문제가 더 심각하여 제대로 빛도 못본 채 협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 버린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회원 모두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크게는 건축3단체가 하루빨리 결속을 해야 한다.

물론 단체별로 제각기 성격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개념은 하나라고 볼 때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한국건축가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여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학위를 이수해야만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들의 당면문제만을 고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의 권익도 함께 옹호해 주어야 한다.

건축사 이전에 우리들 대부분은 보조원으로, 또 건축

사보로 일선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해 왔음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반문을 해보고 싶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보호하고 감싸주어야 한다. 인력자원의 이중관리...?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이었고, 그들이 곧 우리인 것이다.

별건 대낮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내 자식을 건설기술인 협회라는 곳에 양자로 보내게 될 판이고, 나 또한 그곳에 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정말 꼴이 말이 아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며 건축사 면허를 받아야 했는지 회의가 앞설 뿐이다.

그나마 지난번 서울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 때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결의문 발표 방법에 있어서 건축사신문에 게재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성금모금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일간지 등에 며칠 동안 계속하여 큰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했어야 옳다고 본다.

그리하여 전기법의 부당성과 왜곡된 우리들의 의지를 국민에게 고발하고 여론의 주목을 불러일으켜 우리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전 건설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했다.

보라! 4천만 국민을 대상으로할 때 가족구성원 중에 건설관련 자격소지자가 한명이상 있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 우리의 주장을 관철 시켜야 한다. 아무리 집안에서 탁상공론 해본들 지나는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떠들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크게 놀랄만큼 떠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행정편위 주의가 이끌어 낸 책임전가의 악법이 수시로 생겨나고 바뀌는 건축법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물어 보고 싶다.

아마 유사 이래로 우리나라처럼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는 나라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뭐하나 '핑' 터지면 새로운 법이 하나 생기고, 더러는 바뀌고 그 장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법을 이해하기도 전에 또 법이 변경된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법이 모자라서 그 많은 일들이 발

생하였는가? 아니다! 이 나라엔 원칙이 없어서 그렇다.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된 원칙이 원칙인 척하고 있을 뿐이다.

T.V 광고에 원칙을 운운하는 공익광고 방송을 몇 차례 본적이 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쓴 웃음만을 자아내게 하고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긴다. 오죽하면 그런 공익광고가 나와야만 했을까? 세상엔 법도 많은데 우리의 사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원칙없는 모순이 모순을 계속하여 잉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 편의를 위하여 건축행정을 간소화했다고는 하나 실무에서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간소화되고, 편해진 것이 있는가?

한가지가 폐지되거나 간소화 된 것이 있으면, 오히려 서너가지의 보완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니 이는 절차만 복잡해지고 수만 더 늘어난 셈이 되어 그러한 발표가 나올 적마다 우리네들은 한숨을 쉬게 마련이었다.

복지부동과 몸사리기에 급급한 일선 공무원들을 볼 때 같은 인간으로서 책임규명을 위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회의가 앞선다.

실질을 무시하고, 겉치레만 요란한 전시행정을 그만 탈피하여야 한다.

최초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나라는 법도 빨리 잘 만든다. 하기가 머리 좋으면 법대, 의대하던 시대가 있었으니 무리는 아니다.

법이란 책상에 앉아서 볼펜 굴러가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 조만간 우리 건축사들은 전대미문에도 없는 합법적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전두환, 노태우도 쉽게 못해 보는 무기징역을 우리는 쉽게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건축주, 시공자, 공무원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기막히게 잘도 만들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발상을 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무항변, 무저항의 처세술이 우리들의 성스러운 품위를 유지시켜 주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제 는 단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주어진 권익을 공유할 수 있다.

웬만큼 기반도 닦고 경제적 여유도 있음직한 선배 건축사 회원들의 경우,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상태에 안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깨어나야 한다.

고양이를 키워 호랑이로 만들지언정 이제 출발하려 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방패 역할을 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소장파 대개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영세성을 면할 길이 없는 과국에 회원간의 결속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제살 깎아먹기식의 덤핑 수주로 온몸이 멎들어 가고, 감리비를 제대로 받기는커녕 건축주들은 감리를 으레 서비스로 요구하고 나선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면 해준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처사인가?

이는 모순이 관행처럼 되게 한 선배들의 과오도 적지 않았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책임감리제도에 따른 감리전문업체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전 회원의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감리전문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요율에 가깝게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 설계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장파 사무소의 경우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인 것이다.

'뽕 먹고 알도 먹는다'는 식의 논리가 지배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제 막 돌아나기 시작한 새싹들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시들어질 운명에 처해 있다.

급기야 몇몇 회원사들이 모여 직원의 숫자를 충족시키고, 경영을 분담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는 등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실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감리업무를 수주하게 될 경우 그때그때 필요인원을 별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게 되니 운영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을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

제대로 설립된 감리업체라 할지라도 현장의 실질적 인원과 관에 보고된 현장 배치인원과 일치되는 곳이 있을까?

한마디로 '글썸올시다'이다.

모순은 또다른 모순을 파생시키게 되므로, 이 제도의 시행에도 원칙이 무시되는 모순이 관행처럼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결국 그 화살은 우리에게 또 올 것이다.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우리는 우리발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더구나 신규 사무소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세사무소를 의식하여 내놓은 지구책으로 일반 사무소도 적정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감리전문업체로 인정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인가?

정말 머리로 좋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떤 작자들이 하고 시행하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뺨이라도 후련하게 치고 싶다.

'눈가리고아웅' 하는 식의 정책은 더 늦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이참에 나는 주장한다.

우리 모두의 공영을 위해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에만 전념해야 한다.

서로의 전문성 제고로 점차 심화되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선배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조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착공 검사, 중간 검사,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제발 다시 가져가십시오.

책임전가에 전전공공하지 말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세금을 내야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오!

일년 동안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희망보다는 날이 갈수록 절망의 순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자리에 다 표현하려면 몇날 밤을 지새워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이 선명하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옳다고 인정되어 진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은 잘도 단결하고 단체 행동도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우리 건축사들은 왜 모래알처럼 흩어지기만 하는가?

앞으로는 전기나, 기계 등 우리와 뿔레야 뿔 수 없는 협력업체의 일들까지 건축주가 별도의 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 온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만 하는가?

어차피 우리가 모래라면, 이제부터라도 시멘트와 물과 골재를 섞어 부어서 푹푹 뭉쳐보자.

책상에 앉아 말로만 떠들어 댈 것이 아니라 협회 모임에 한번이라도 참석해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플랭카드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우리 협회에는 우리의 주장을 표현할 만한 문구 하나 걸려있지 않다.

특히 나와 같은 젊은 소장파 여러분!

등지 안에서 어미가 먹이를 물어 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이젠 그만 움추린 날개를 활짝 펴고 밖으로 뛰쳐나오라.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현안들을 풀어 나가자.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어린이에게 있듯이 우리의 협회와 이와 관련된 건축인들의 미래는 우리 젊은 소장파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선배 회원들의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며 젊은 회원들이 맘껏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마당을 마련해 주기 바랄 뿐이다.